



#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 나눔의 손길 행복의 발길

사법법과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인 보시.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를 권하고 있다. 결국 보시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초월해 어떠한 상(相)에도 집착함이 없는 보살행이자 수행의 첫걸음인 셈이다. 보시법의 현대화된 형태인 복지봉사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 ◎불교복지, 얼마나 성장했나?

불교복지는 지난 98년 이후 큰 폭의 외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2003년 5월 현재 집계한 불교 사회복지시설은 총 468곳. 지난 98년 292곳에 비해 37.6%(176곳)가 늘었다. 시설별로는 자원봉사기관 75.0%(9곳), 장애인 56.7%(17곳), 아동 54.1%(73곳), 노인 45.7%(42곳), 지역복지 12.5%(5곳)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불교복지 시설 중 44.5%(208곳)를 차지하는 아동시설의 증가요인은 불교계가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여성의 육아보육후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이다. 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의 증가는 불교복지 서비스 영역이 사회적 약자에까지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노인복지의 경우, 지난 2000년을 고비로 65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 노인복지 시설은 총 92곳으로,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시설 중 불교계 노인복지사업을 이끄고 있는 곳은 연꽃마을과 인덕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지역복지, 여성·노숙자 시설들은 98년과 같은 수준인 31.5, 1곳에 각각 머물러 있고, 의료기관은 단 1곳만이 늘어났다. 오히려 줄어든 복지시설도 있다. 98년 IMF 관리체제 당시 개설된 노숙자 시설은 4곳에서 1곳이 감소했다. 이들 시설이 줄어든 원인은 여성, 노숙자 시설 등 소단위 시설운영의 외면, 스님과 신도들의 인식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 ◎풀어야 할 과제는?

시급한 과제는 늘어난 몸집에 걸 맞는 '내실 다지기'다. 시설 수락 위주의 사업 전개, 외형 갖추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불교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후원금 모금 방법 체계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할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불교복지 전반의 편중현상 극복이다. 아동·노인 등 특정 분야 집중

### 복지·자원봉사 현주소는...

을 비롯해, 일부 지역과 도심에 몰려있는 시설들, 단순 노력봉사에 치우친 자원봉사 활동영역 등의 문제점은 불교복지가 풀

어려 분야의 시설 설립과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원 설립 등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불교복지시설 468곳... 98년보다 37% 증가

### 전문인력 양성·체계적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바람직

아할 과제들이다.

특히 문제는 불교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다. 시대에 맞게 불교복지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 맞는 여성·인권·환경 문제 등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각 교구분사별로 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불교복지가 단 기간에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인 만큼, 지금은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자원봉사' 시대 불교복지의 양적 팽창은 활발한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가능케 했다. 이제는 불교

자원봉사 활성화와 후원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계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자원봉사의 현황은 이 같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공급 및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교육하고 활용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

현재 자원봉사 양성기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종사회복지재단, 진각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 총 12곳에 불과하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가 최소 10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턱부족이 적다.

봉사활동 분야의 편중현상도 심각하다. 무료급식, 간병, 발 관리 등 몇몇 분야에 인력이 집중되다보니 이 같이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초 발표한 '자원봉사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자원봉사 활동시간 총 3만6천637시간 가운데, 식사지원(음식조리, 밑반찬 배합)

등의 단순 노력봉사활동이 전체 봉사활동 시간의 40%(3만7천98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호스피스, 의료지원, 한방요법 등 전문분야는 물론 자원봉사 전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단순 교육과 파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연꽃마을이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산하 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자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복지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의 '교육-파견-재교육-보상' 등의 관리순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실행문화의 인식전환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실행문화의 조성이다. 또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봉사 영역의 다각화·전문화 △자원봉사 상여보급 가입 등의 보상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양성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산중에서 중생계로... 복지 불모지에 '씨앗'

### 복지현장을 이끄는 스님들

산 중에 머물러 한국 불교가 중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초. 이 무렵부터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복지의 토대를 일군 주인공은 바로 정연, 성운, 각현, 제원, 설운 스님 등이다. 뒤를 이어 해성, 성덕 스님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고, 이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 불교복지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90년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지역복지 분야. 종합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삼전복지관 전 관장 각우 스님, 구로복지관장 설운 스님, 옥수복지관

장 상덕 스님, 김음복지관장 제원 스님, 송광복지관장 현고 스님 등이다.

불교복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는 노인복지. 여기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스님으로는 3개의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과 연꽃마을 이사장으로서 안성노인복지타운 등을 운영하는 각현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로는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인 소쩍새마을의 원장 현각 스님, 청각 장애인 복지 선구자인 연화복지원장 해성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물운대복지관장 정연스님도 돋보이는 복지봉사를 펼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체'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 결식아동, 독거노인 100여 가구에 도시락배달 봉사활동을 4년째 벌이고 있다.



◇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수해로 붕괴된 축대에 보수공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자원봉사 불교대 정규과정 편입"

### 불교복지 이론적 토대 구축 김용택 교수

"그동안 불교복지의 정밀 무라블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자원봉사를 다변화하는 등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논현동에 불교복지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불교복지의 이론적 토대 구축에 부심하고 있는 김용택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사진). 김 교수는 그간 불교 복지가 일군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현대 복지이론에 불교사상을 접목시키는 것. 김 교수는 "불교복지란 맑은 맑이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불교복지 이론으로 내놓을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며 "불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이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불교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김 교수는 불자 개개인을 복지 자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자원봉사를 불교대학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복지 교육을 강화해 자원봉사자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환경·교육·행정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2517-3052 강유신 기자

마음 맑으면 은누리가 부처님나라

# "마음의 등불 하나가 온 우주를 밝힌다"

본 선원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일동



**법회** 본래로부터 밝혀져 있는 마음을 제대로 깨우쳐 부처님의 세계에 들고자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실행법회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회시간 □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넷째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제법회 매주수요일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학생법회 매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청년법회 매주화요일 오후 7시 / 초하루 보름 정진법회 음력 초하루보름 오전 10시 30분.

**영탑** 불교의 전통적인 탑을 설치하여 조상님의 육신을 모시는게 아니라 영혼을 모심으로 조상님을 올바르게 모시는게 되고 직계 대대로 영원히 쓸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 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고, 공인형식이라 신성하고 친근감이 듭니다.

**위치** 경기도 25호선중에 진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창원 IC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육교에서 금산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삼영타워 공장방면으로 300여 미터 들어 오다보면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자세한 참조는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약도를 참고하세요.)  
URL: (http://tree.hanmaum.org/jungbu)  
주소 62211-81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 345-9900/342-6639 · 0 Fax 055) 346-2179

대한불교조계종한남대교구사무국 (055) 345-9900